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원 26주년 및 기관명칭 변경 2주년 기념 심포지엄

대전환기 인재정책의 핵심 쟁점과 발전 전략

2023. 10. 17.(화) 10:0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대강당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원 26주년 및 기관명칭 변경 2주년 기념 심포지엄

대전환기 인재정책의 핵심 쟁점과 발전 전략

2023. 10. 17. (화) 10:0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대강당

프로그램

개 희		
711 - 11		
10:00~10:30	개 회 사	류 장 수 원장(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환 영 사	정 해 구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축 사	이 주 호 부총리 겸 장관(교육부)
		이 성 식 장관(고용노동부)
		이 배 용 위원장(국가교육위원회)

제1부 발표

10:30~11:30 주요 첨단산업 기술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전 재 식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대전환기 적응을 위한 중고령자 직업훈련의 성과와 개선 방안

문 상 균 부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외국인 고급 인력의 실태와 정책 과제 - 외국인 국내 박사를 중심으로

장 광 남 부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제2부 로론

11:40~12:20 좌 장 **나 영 선**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8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토 론 권 태성 국장(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가나다 순) **서 용 석** 소장(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송 근 현 국장(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이 진 면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홍 성 민 센터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

폐 회

12:20

^{*} 위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차

н	r	$\boldsymbol{\pi}$	
		\mathbf{T}	

주요 첨단산업 기술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1

전 재 식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발표 2

대전환기 적응을 위한 중고령자 직업훈련의 성과와 개선 방안

15

문 상 균 부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발표 3

외국인 고급 인력의 실래와 정책 과제 - 외국인 국내 박사를 중심으로 33

장 광 남 부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재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원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 ('23.10.17.)

주요 첨단산업 기술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전재식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차 개원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 1. 분석대상 첨단산업
- 2. 첨단산업 기술인력 조사
- 3. 첨단산업 기술인력 현황과 이슈
- 4. 첨단산업 기술인력 정책 방향

1. 분석대상 첨단산업

개원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 첨단산업 육성 정부정책 흐름

2016~2017~2018~2019~2020

생림교트를 열신성장 디지털결함

제조연고토화 사업회신가속화 미래산업

- 관계부처 합동(2018.8.13),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관계부처 합등(2019.1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2030년 국가 로드맵」
- 관계부처 합등(2019.5.1),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관계부처 합동(2019.6.19),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 전략」 관계부처 합동(2019.8.21),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 D.N.A. + BIG3: Domino 확산 전략
- 확산 선택] 관계부처 함동(2019.8.21),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성장동력 업그레이드, 삶의 될 제고」 관계부처 합동(2020),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관계부처 합동(2020), 「산업 AI 융합인재 양성 관련」
- 관계부처 합등(2020.10.14),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안)
- 관계부처 합동(2020.8.20),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산업부, 과기부 중심 신산업/신기술 정책

신산업정책 종합화

- 한국판 뉴딜

첨단분야 인재양성정책

- 관계부처 합동(2020.7.14),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 관계부처 합동(2021.7.14)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 관계부처 합동(2021.4.14), 「빅3+인공지능인재 양성방안
- 관계부처 합동(2021.11.16), 「인재양성 정책
- 과계부처 합동(2021.7.22), 「산업구조 변화에 대용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교육부, 고용부의 신산업 신산업 인프라구축 정책 인재양성 후려정책

2022~2023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

- 관계부처 합동(2021.5.13),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관계부처 합동(2021.10.14)
-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안)」 관계부처 합동(2022.7),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 관계부처 합동(2022.8),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 산업부·국토교통부(2023.3.15),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 관계부처 합동(2023.4.6),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
- 교육부(2023.2.1),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첨단산업・첨단기술・첨단인재 연계

1. 분석대상 첨단산업

개원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 첨단산업 정책에서의 주요 첨단산업

2016~2017~2018~2019~2020

2022~2023

- (유망 주력산업) 미래형자동차, 친환경선박, 첨단신소재, OLED, 시스템반도체 IoT가전, 로봇
- (유망 신산업) 에너지 신산업, 첨단신소재,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AR/VR
- (3대 전략투자분야)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 (8대 선도사업) 자율주행·친환경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 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핵심신산업)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 (3+1 전략투자분야)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혁신인재 양성
- (선도사업) 미래차,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공장·산단,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드론
- (DX 결합산업)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에너지기자재, 뿌리, 철강, 의료기기, 전기전자, 유통물류 (B3+AI)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 (공정한 노동전환)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IoT, 블록체인, 핀테크, 실감형컨텐츠, 3D프 린팅, O2O, 지능형반도체,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제조, 첨단소재, 스마트헬스,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자원순환, 대기산업, 물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스마트팜
- (국가첨단산업)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 (초격차 R&D전략 3대 주력기 (a)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 시스템반도체, K-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개원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 조사 범위

- > (조사산업 대상) 산업기술 R&D투자 전략, 산업정책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14개 신산업
 - ❖ 2018년 첨단신소재산업이 2020년부터 4개 소재 관련 세부 산업으로 분리
 - ❖ 2021년부터는 신산업 특성에 따라 3개 산업군으로 분류하여 3년 단위로 조사 및 전망 수행
 - 시스템(5개): IoT가전,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
 - 부품·장비(4개): AR. VR, 차세대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 소재(5개): 신금속소재, 차세대세라믹소재, 하이테크섬유소재, 첨단화학소재, 이차전지

	신산업군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IOT가전			0			0		
시스템	디지털헬스케어				0		0		
관련	미래형자동차	0			0		0		
신산업	스마트·친환경선박				0		0		
	항공·드론				0		0		
	AR·VR			0				0	
부품·장비	차세대디스플레이			0				0	
관련	지능형로봇		0		0			0	
신산업	차세대반도체			0		0		0	
	이차전지								0
	신금속소재					0			0
소재 관련	차세대세라믹소재			0		0			0
신산업	하이테크섬유소재			0		0			0
LLB	첨단화학소재					0			0

4

2. 첨단산업 기술인력 조사

개원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 조사 개요

- ▶ (배경) 통계기반 신산업 기술인력 현황 분석과 중장기 전망에 대한 요구
 - 2016년 이후 급격하게 국가차원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첨단/전략산업 관련 혁신인재 양성 근거 마련
 - ❖ 정부의 신산업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초정보 생성
 - 정부는 2017년 「신산업 필요인력 중장기 세부직무 전망」실시('17.2, '17.4.). 하지만, 동 전망은 각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분류체계에 근거하지 못했다는 점과 현황 분석에 기반한 전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통계적 제약 발생
- > (필요성) 급변하는 신산업·신기술에 대응해 기술인력의 명확한 진단 및 전망의 필요성
 - ❖ 일정 기간의 주기성을 갖고 산업·기술 변화 추적 및 신산업 정의 및 범위 등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 점검 필수
 - ❖ 신산업 산업기술인력 조사 실시/심층분석을 기반으로 주기적인 중장기 산업기술인력 전망이 필요
- ▶ (목적) 첨단산업 관련 산업기술인력 전망 및 통계 인프라 구축

개원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 첨단산업 범위 및 정의

- > (미래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및 스마트자동차 분야의 완성차 및 관련부품의 HW/SW 등 제반 기술 을 개발 또는 생산하는 제조업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 산업
 - ♦ 친환경자등차, 스마트자동차, 인프라·서비스
- ▶ (디지털헬스케어) 기존 헬스케어에 AI,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소형화 등의 기술이 융합된 분야로, ICT를 활용하여 시간/장소 제약 없이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진단·모니터링·관리하고 필요시 맞춤형 의료 지원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 산업
 - ❖ 개인용 헬스케어기기, 현장진단(POCT) 휴대형 기기, 지능형 건강관리서비스
- > (차세대반도체) 반도체 소자, 회로, 모듈, 시스템의 기능·성능 및 소모 전력을 개선하거나, 첨단공정을 적용하여 고도화 및 미래 신시장 분야 주요 기기의 부품이 되는 반도체를 개발 또는 제조하는 산업
 -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 ▶ (차세대디스플레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주요 응용기기들의 정보를 제약 없이 제공할 수 있도 록 형태적·기능적 제한을 뛰어넘는 디스플레이 및 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를 개발 또는 제조하는 산업
 - ❖ 차세대디스플레이 패널·모듈, 차세대디스플레이 장비, 차세대디스플레이 소재·부품

5

2. 첨단산업 기술인력 조사

개원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 산업기술인력 직무 범위

- ▶ (직무) 산업기술인력 정의를 수용하는 7개 직무
 - (산업기술인력) 고졸 이상 학력으로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기업임 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
 - ◇ (직무) ① 연구개발 ② 설계·디자인 ③ 시험평가·검증 ④ 생산기술 ⑤ 품질관리 ⑥ 보증·정비 ⑦ 구매・영업・시장조사



개원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 조사 항목

> (조사흐름도)



▶ (조사항목)

조사영역	세부함목	살여기업	MOKRES/710
사업체 일반 행활	• 설립인도 • 출시자수 • 사업체소R지 • 사업체 조직유함 • 기업 대충역 • 기업 연구개절비	000000	000000
사업환경 및 경영환경 현황	○○○ 시설 참이가별 되는 생선 이무 소리 경에 복아(대본회) - 우리 없이 복아(소본회) - 우리 없이 복아(소본회) - 오스 시설 단계 - 경제 보이는 경기 보이는 경기 보이는 경기 보이는 경기 - 경기 보이는 경기 보이는 경기 보이는 경기 - 경기 보이는 경기 보이는 경기 보이는 경기 - 오스 시설 전임인의 보수 이부 - 오스스 시설 전임인의 보수 이부 - 오스스 시설 전임인의 보수 이부 - 오스스 시설 전임의 보수 이부 - 오스스 시설 전임의 수은 - 오스스 시설 전임의 수은 - 오스스 시설 전임의 수은 - 오스스 시설 전임실 수은 - 오스스 시설 전임실 수은 - 오스스 시설 전임실 수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
산압기술인력 현황	○○○ 선당기원인력 현원 ○○○ 설망기원인력 당금조건 ○○○ 설망기원인력 당금조건 ○○○ 설망기원인력 당요만에 구모 ○○○ 설망기원인력 범모인에 구모 ○○○ 설망기원인력 부모인원 ○○○ 설망기원인력 부모인원 ○○○ 설망기원인력 부모인로 발생하는 아래출 ○○○ 설망기원인력 부모인로 발생하는 아래출 ○○○ 설망기원인력 부모인 보생 노목 ○○○ 설망기원인력 부모인 보생 ○○○ 설망기원인력 부모인 보생 ○○○ 설망기원인력 부모인 보생 ○○○ 설망기원인력 부모인 보생 ○○○ 설망기원인력 처음인력 ○○○ 설망기원인력 처음인 보생 ○○○ 설망기원인력 처음인 보생 ○○○ 설망기원인력 처음인 처음자장에서 대로 ○○○ 설망기원인력 처음 전용 ○○○ 설망기원인력 처음 전용	00×00000000000	× × 0 × × × × × × × 0 × 0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지원 정착시대 분제 및 개선 의견	- 정부의 ○○ 산업기술인력 양성의 문제점 - 정부의 ○○ 산업기술인력 양성 문제약값 중요성 - 정부의 ○○ 산업기술인적 문제약값 산석성 - 경부의 ○○ 산업기술인적 문제약값 선택도 - ○○ 산업기술인적 당성 주석 - ○○ 산업기술인적 양성 주석 - ○○ 산업기술인적 양성 주석 - ○○ 산업기술인적 양성 필요용한 문야	00000000	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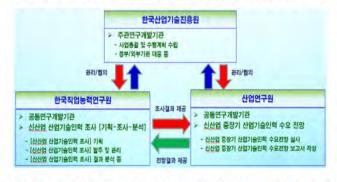
7

2. 첨단산업 기술인력 조사

개원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 조사 체계

▶ 산업기술진흥원-산업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 작성 형태



신산업 정의/분류체계 개발 관련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해당 SC가 연구에 참여



개원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 자료출처: 산업기술인력 수급통계 (https://www.kiat.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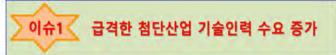
9

3. 첨단산업 기술인력 현황과 이슈

개원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 ♦ 첨단산업 기술인력 현원 및 채용인력 변화
 - ▶ 첨단산업별 기술인력 현원 : 현황과 전망
 - ◆ (미래형자동차) 50,533명('18) ☞ 72,326명('20) ☞ 107,551명('30)
 - ◆ (디지털헬스케어) 38,050명('18) ☞ 49,253명('20) ☞ 78,279명('30)
 - (차세대반도체) 36,341명("19) ☞ 56,446명("21) ☞ 98,130명("31)
 - ❖ (차세대디스플레이) 14,201명('17) ☞ 42,624명('21) ☞ 59,813명('31)
- ❖ 근로자 변화 (단위:명) 2017년 2022년 혀워 11,803,864 12,953,201 채용인원 639,912 752,038 출처: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해당년도

- 첨단산업별 기술인력 채용인력
 - ◆ (미래형자동차) 4,796명('18) ☞ 10,545명('20)
 - ♦ (차세대반도체) 2,261명('19) ☞ 8,460명('21)
 - ◆ (디지털헬스케어) 5,216명(*18) → 4,776명(*20)
 - ♦ (차세대디스플레이) 1,296명(*17) ☞ 3,971명(*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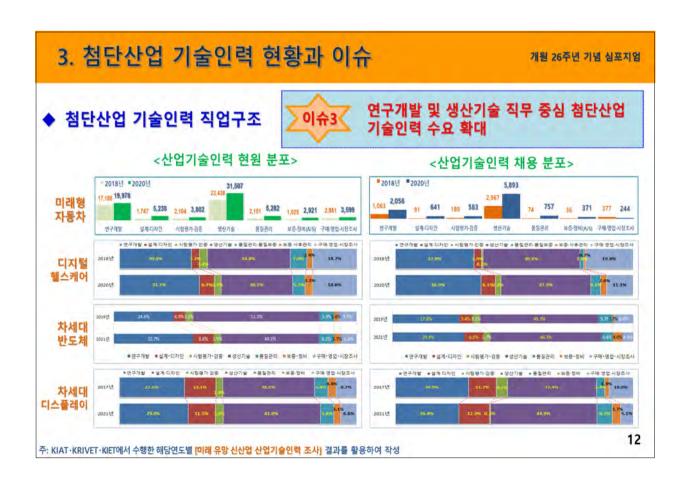


구분	현재인원		채용인력	
TE	2017년	2021년	2018년	2021년
자동차	116,331	119,818	12,923	13,695
바이오·헬스	30,039	35,528	2,805	3,806
반도체	90,501	104,004	4,966	5,412
디스플레이	50,562	48,864	1,850	1,774

10

주: KIAT · KRIVET · KIET에서 수행한 해당연도별 [미래 유망 신산업 산업기술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

3. 첨단산업 기술인력 현황과 이슈 개원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 첨단산업 기술인력 양적 미스매치 ▶ 첨단산업 기술인력 부족률 (* 부족률=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100) 6.6% 7 096 6.0% * 주력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4.4% 4.0% 3.5%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0% 2.0% 1.0% 0.0% 미래형자동차('20) 차세대반도체('21) 차세대디스플레이('21) 물처: 산업부·KIAT, 「2022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공표자료」 이슈2 주력산업보다 높은 기술인력 양적 미스매치 11 주: KIAT·KRIVET·KIET에서 수행한 해당연도별 미래 유망 신산업 산업기술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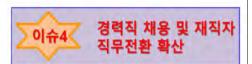
3. 첨단산업 기술인력 현황과 이슈

개원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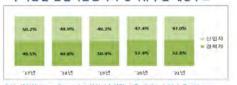
- ★ 첨단산업 기술인력 채용패턴 변화 : 경력적 중심
 - ▶ 첨단산업 기술인력 경력유무별 채용 구조



- 산업기술인력 직무전환 규모
 - ◆ (미래형자동차) 450명('15) ☞ 4,530명('18) ☞ 1,439명('20)
 - (디지털헬스케어)
- 2,045명('18) 🖙 437명('20)
- 수 (차세대디스플레이) 188명(*17) 1,156명(*21)



* 주력산업 산업기술인력의 경력유무별 채용구조



- 출처: 산업부·KIAT, 「2022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공표자료」
- 주력산업
 - · (제조부문)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헬스,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절강, 화학
 - · (서비스부문) 소프트웨어, IT비즈니스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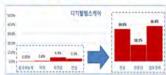
주: KIAT-KRIVET-KIET에서 수행한 해당연도별 미래 유망 신산업 산업기술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

3. 첨단산업 기술인력 현황과 이슈

개원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 ♦ 첨단산업 기술인력 채용 관련 요구 역량
 - ▶ 첨단산업 기업은 기술인력 채용시 학력/자격증보다는 지식·기술 관련 전문성 중시
 - 첨단산업 소속 기업의 기술인력 채용시 주요 고려사항 (1순위 기준)





※ 혁신성장에 대응한 근로자들의 취업 요건과 직무 수행 역량 인식수준 변화 <직업을 얻기 위한 중요 요건 변화> <효율적 직무 수행 역량 변화>





출처: 전재식 외(2019), 일과 학습의 미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4

주: KIAT · KRIVET · KIET에서 수행한 해당연도별 [미래 유망 신산업 산업기술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

3. 첨단산업 기술인력 현황과 이슈 개원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 첨단산업 기업은 기술인력 채용시 필요한 요구 전공 다양화 중 기술인력 채용시 선호전공 자성대다스는 00% 20% 20% 전투대용은 2 0% 소프트웨어오 2 0% 전기에 맞아지 11% 전기에 맞아지 11% 지하는 선생 일반으기 0% 원리는 기계 등 전기 15% 전기에 가는 전기 15% 전 미래형자동차 디지털훼스케어 차세대반도체 00% 100% 200% 500% 400% 50.0% 0.0% 10.0% 20.0% 30.0% 40.0% 50.0% ON 100% 100% 300% 400% 500% ODS 100% 200% 300% 400% 500% 변류 등 100% 현대에서소 및 17% 소트로워 및 15% 소트로워 및 15% 건강 임네네 11% 전수 임자료 125% 기계 있다 15% 지원 기계 있다 15% 지원 기계 있다 15% 지원 기계 기계 기계 15% 지원 기계 기계 15% 지원 기계 15% 정류되 활용 4.0% 테이터베이스 및 4.2% 소프트웨어 및 8.4% 한가 및 메너지 9.7% 전자 및 자동화 12.3% 가지 보통제작 산업디자인 0.4% 보안서비스 산업디자인 보안서비스 보안서비스 의학 및 약학 43% 외학 및 약학 14% 외로진단 및 제로기술 14% 치료요합 및 제함 0.5% 교육 -전공물은 0.3% 의학 및 약한 . 실역 및 결합 의학 및 학학 의료진단 및 치료기술 지료요합 및 작품 기요 의로진단 및 치료기술 지료으법 및 재활 고유 의에 맞지다 의료진단 및 치료기술 치료요합 및 제활 교육 전공불문 | 15% 전공불문 45% 건공품문 15N 이슈5 전문성 중심 채용 및 요구전공 다양화

주: KIAT-KRIVET-KIET에서 수행한 해당연도별 미래 유망 신산업 산업기술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



4 첨단산업 기술인력 정책 방향

개원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 ◆ 첨단산업 기술인력 육성 정책 : 수요 증가 및 양적 미스매치 해소 >이슈f< >이슈S<
 - 대학 수준의 현장 맞춤형 첨단산업 기술인력 육성 규모 확대
 - 대학교 수준에서 학과(전공) 정원 조정을 통한 첨단산업 관련 전공자의 양성 규모 확대
 - 차세대반도체 산업의 경우, 초격차를 확보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정원 확대, 융합교육으로 저 변 확대, 반도체 인재양성 중장기 기반지원 구축의 3대 분야를 선정하여 세부과제를 추진 중 (관계부처 합동(2021),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 산학협력형 현장기술 수요 맞춤 훈련프로그램 도입
- ◆ 연구개발 및 생산기술 중심 첨단산업 기술인력 육성 정책 : 혁신인재 육성 <mark>→ 미슈</mark>국
 - 대학원 수준에서 기술수요 맞춤형 첨단산업 전문인력(핵심인력) 육성
 - ❖ 대학원 수준의 융합 신기술 학제 도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 > R&D-HRST 연계를 통한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
 - ▶ 대학(원) 교육체계 고도화, 특히 기업-대학-연구소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 활동 촉진

17

4. 첨단산업 기술인력 정책 방향

개원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 ◆ 경력직/재직자 직무전환 정책 : Re-skilling >이슈4<
 - 이종산업간 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숙련변화에 대한 재교육 지원
 - ▶ 재직인력 대상 직무전환 지원을 위한 Re-skill / Up-skill 교육훈련 강화
 - 🗾 융합형 핵심 연구개발인력들이 해당 첨단산업에 대한 지식과 주력산업이 첨단산업으로 고도화에 필요한 필수 신기술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직무전환교육 지원
 - 재직 연구개발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차세대반도체 신기술 대상 Nano Degree 교육과정 설계
- ◆ 전문성 중심 채용 및 요구전공 다양화 : 역량 및 전문성 중심의 전공 교육 <mark>→미슈5<</mark>
 - 대학-기업-연구소의 교육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과 현장 실무와의 괴리 축소
 - 실무 중심의 교육과 대학 중심의 기초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
 - ▶ 첨단산업 맞춤형 학력별·분야별·수준별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통해 Value-chain에 맞는 직무 중심의 교육훈련 추진
 - ▶ 디지털기술(D.N.A 등)과 첨단산업간 기술 접목



02

대전환기 적응을 위한 중고령자 직업훈련의 성과와 개선 방안



문상균 부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대전환기 적응을 위한 중고령자 직업훈련의 성과와 개선 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원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문상균

본 연구는...

● 본 연구는

- 1) 중·장년층 직업훈련(개인훈련)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여 중·장년층 직업훈련의 효과를 확인
 - 확인가능한 1960년대 생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으나, 본 발표 자료에서는 최대한 훈련 경험자와 미경험자의 특성이 유사한 집단(총 29만 6천개 표본(24,714명), 훈련 수료 집단 12,357명)에 대하여 분석
- 2) 누구에게 어떤 훈련이 좀 더 효과적인지 분석하기 위해 훈련 특성과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 검토
 - 중·장년층 중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실증 자료를 토대로 파악
- 3) 분석 경험과 결과 그리고 관계자 FGI를 토대로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장기적 기대효과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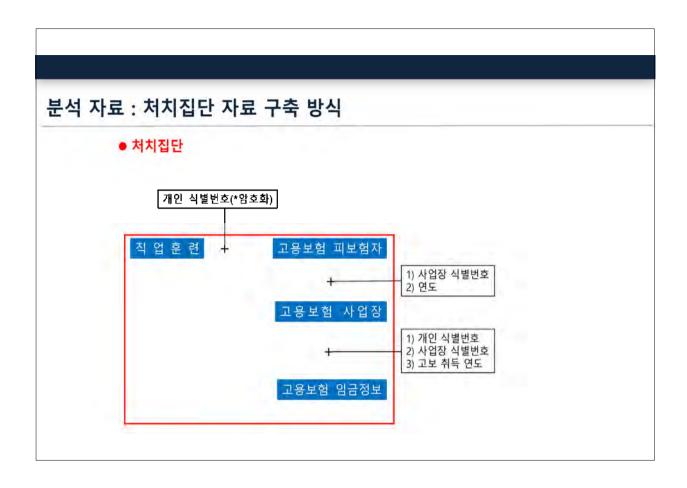
분석 표본, 훈련 그리고 성과 변수

- 분석 대상 성과 변수
 - 분석 표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직업훈련 자료에 포함된 표본 중 출생현도가 1960년대인 표본
 - 분석훈련
 -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개인훈련으로 근로자훈련과 실업자훈련을 포함

 - 1) 근로자훈련 수료의 효과 분석 시: **2014년, 2015년 시작 훈련**
 - 2) 훈련(근로자 & 실업자훈련) 특성과 훈련 성과 상관관계 분석 시: 2010년 ~ 2021년 시작 훈련 (*만 41세 이후 경험한 훈련, 고용부 신중년 관련 정책 중 일부 만 40세 이후 지원 가능)
 - 노동시장 성과 변수
 - 고용보험 취득 여부: 해당 연도에 고용보험을 취득하거나 취득 상태인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 고용보험 임금정보에 존재하는 월평균임금

분석 자료

- 분석에 사용한 자료
 - 직업훈련DB
 -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사업장 DB
 - · 고용보험 임금정보 DB
- 본 자료 사용 시 장점
 - 과거 중·장년층의 직업훈련 효과 분석의 한계 보완
 - 1) 기존 패널 설문조사의 경우 중·장년층 중 직업훈련 경험자가 드물어 분석이 어려웠으나, 행정자료 사용을 통해 이를 극복
 - 2) 중·장년층, 본연구에서는 1960년대생들의 고용보험 이력을 이용하여 과거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검토하고, 경력을 변수화 함
 - 비교집단 선정 시 엄밀성 확보
 - 1) 전수 자료→ 처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표본을 <u>비교집단</u>으로 선정





비교집단 선정 방법: 성향점수 매칭

-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 처치집단과 성향점수가 유사한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는 방식.
 - 성향점수는 처치에 참여할 예측 확률(predicted probability)
 - 본 연구에서 성향점수는 <u>개인 훈련(실업자 및 근로자훈련) 에 참여할 확률</u>
 - 관찰 가능한 특성을 나타내는 집합을 벡터 X라고 가정할 때, 성향점수는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P(X) = \Pr(T = 1 \mid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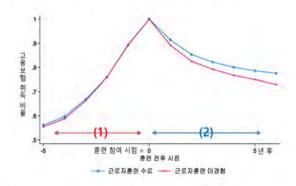
2014년, 15년 개인 훈련을 수료한 1960년대생 처치집단(12,357명) 1960년대생 비교집단(12,357명)

성별, 소속 사업장 지역, 규모, 산업, + 학력, 훈련 당시 임금 + 과거 직종별 고용보험 취득 기간 연령 + 종사 직종

분석 자료 : 자료 매칭 방식 ● 처치집단 & 비교집단 성향점수매칭 개인 식별번호 직 업 훈 련 고용보험 피보험자 1) 사업장 식별번호 2) 연도 고용보험 사업장 1) 개인 식별번호 2) 사업장 식별번호 3) 연도 고용보험 임금정보

분석 결과1: 중·장년층 근로자훈련 성과 분석

● 중·장년층 근로자훈련 수료 여부에 따른 고용보험 취득 확률 추세



- (1) 훈련 수료 이전 근로자훈련 수료 집단과 비교<mark>집단(미참여)의</mark> 고용보험 취득 비율은 유사한 값을 보임
- (2) 훈련 수료 이후 근로자훈련 수료 집단의 고용보험 취득 비율이 비교집단(미참여) 에 비해 높음

분석 결과 1: 중·장년층 근로자훈련 성과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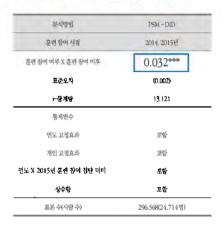
●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y_{i,t+1} = \beta_0 + \beta_1$$
훈련수료여부 $_i \times$ 수료이후시점 $_{i,t} + \gamma_t + \alpha_i + \varepsilon_{i,t}$

- 훈련 수료 여부를 개인 i가 분석 대상 훈련을 수료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터미변수
- 수료이후시점 $_{it}$: 개인 i가 시점t 당시 훈련을 수료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 $y_{i,t+1}$: 고용보험 취득 확률, 월평균임금
- γ_t: 연도 고정효과
- α_i: 개인 고정효과
- $\varepsilon_{i,t}$: 오차항
- $oldsymbol{\cdot}$ $oldsymbol{eta_1}$: 근로자 훈련 수료의 효과

분석 결과1: 중·장년층 근로자훈련 성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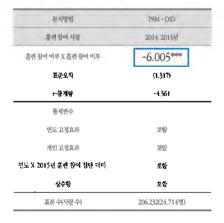
● 중·장년층 근로자훈련 수료 시 고용보험 취득 확률 증가 분석



→ 회귀 분석 결과 근로자훈련 수료 시 고용보험 취득 비율이 3.2%p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분석 결과1: 중·장년층 근로자훈련 성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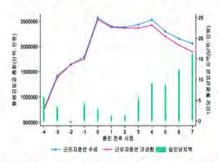
● 중·장년층 근로자훈련 수료 시 월평균임금 증가 분석



- 임금이 확인되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회귀 분석 결과,
- → 근로자훈련 수료 시 비교집단(미참여)비해 월평균임금이 6만원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분석 결과1: 중·장년층 근로자훈련 성과 분석

● 중·장년층 근로자훈련 수료 여부에 따른 월평균임금의 총합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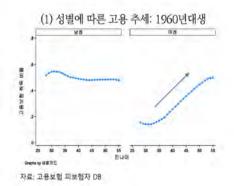


- (1) 위 분석(PSM-DID)에서 사용된 처치집단 12,357명의 월평균임금의 합 파란색 꺽은선 그래프
- (2) 비교집단 12,357명의 월평균임금의 합 빨간색 꺽은선 그래프
- (3) (1) (2)을 12,357명으로 나눈 값으로 = 월평균임금 총액의 평균값 녹색 bar 그래프
- → 1. 훈련을 통해 임금근로자로서 월평균임금 총액의 증가 (← 훈련을 통한 취업 확률 증가에 기여)
- → 2. 월평균임금 총액의 평균값은 4만원 증가(훈련 후 7만원 훈련 전 3만원) vs 훈련과정지원 금액 평균 41만원
- : 1 + 2 = 월평균임금 총액의 증가 > 훈련과정지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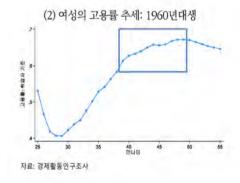
분석 결과2: 누구에게 어떤 훈련이 더 효과적인가

● 분석 대상 선정

1. 노동시장 경력이 짧은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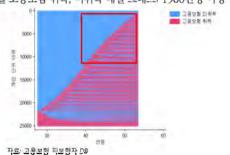


(1)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만 30세 초반 가장 낮은 취득 비율을 보이며, 40세 이후에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2) 고용보험의 제도적 특수성을 보완하기위해 타 자료를 활용 하여 살펴보더라도 만 30세 전후 가장 낮은 고용률, 40세 이후에도 증가

- 분석 대상 선정
 - 1. 노동시장 경력이 짧은 여성
 - 연령별 고용보험 취득, 미취득 배열 그래프: 1960년생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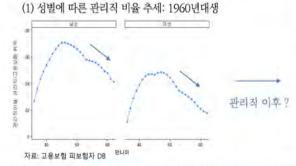


- 고용보험 취득경험이 없던 여성의 신규 고용보험 취득이 만 40세 이후 꾸준히 존재함
 보험 신규 취득자 중 20대 초반 고용보험 미가입 일자리를 경험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앞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참고할 때 이들도 오랜 기간 경력단절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 경력이 짧은 중 장년층 여성에게 근로자 및 실업자 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노동시장 경력 유지를 지원할 필요성 존재

분석 결과2: 누구에게 어떤 훈련이 더 효과적인가

● 분석 대상 선정

2. 관리직 경력자



- (1) 남성과 여성 모두 특정 연령 이후 관리직 비율이 다소 감 소하는 경향을 보임
- (2) 관리직 종사 후 노동시장 이행: 1960년대생 중 44~45세 당시 관리직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 (2) 관리직 이외 직종으로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비율이 높으 며, 만 60세가 되더라도 남성 57%, 여성 47%가 노동시장 에 남아 있음
- → 이들의 높은 인적자원과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분석 대상 선정

- 3. 빈곤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 취약 계층
- 고용보험 자료의 경우 가구 소득이나 자산을 확인하기 어려워 빈곤 가구선정이 어려움
-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노인빈곤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를 고려하여 아래 조건을 선정
 - 1) 생애 동안 가장 근로기간이 긴 일자리(주된 일자리)를 상실한 경우
 -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경우 노인 빈곤 위험 감소(석상훈·김현수, 2012)
 - 2) 노동시장 경력 중 관리직 혹은 전문가 경력이 전무한 경우
 - -관리자 및 전문가 경력이 존재하는 경우 노인 빈곤 위험 감소(김태완 외, 2020)
 - 3) 현재 월평균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취득 기록이 없는 경우
 - 4) 1)~3)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고학력 중장년층을 제외하기 위하여 학력이 대학원 미만인 경우
 - ·학력이 높을 수록 노인 빈곤 위험 감소(홍백의, 2005)

분석 방법 2: 훈련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 선형회귀분석

$$y_{i,t+\alpha} = \beta_0 + \beta_1$$
훈련 특성 $_{i,t} + \gamma_1' X_{i,t} + \gamma_t + \varepsilon_{i,t}$ $\alpha = 1,3$

- $y_{i,t+1}$: 고용보험 취득 확률, 월평균임금
- 훈련 특성, .; 방법, 훈련 직종, 훈련 시간, 훈련과정 금액
- γ_e: 연도 고정효과
- X_i : 개인 i가 갖는 인적 특성(훈련참여 시 연령, 성별, 학력), 이전 이후의 훈련 경험 횟수를 포함하는 벡터
- ε_i: 오차항
- β₁: 성과변수 y_{i,t}와 훈련 특성 사이의 상관관계

- 훈련의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 1. 노동시장 경력이 짧은 여성
 - 목적: 안정적 노동시장 경력 유지

실일자훈련	기타 사항	훈련 시	zh r
	훈련 방식에 따른 효과 (훈련기준: 집체 훈련)	-	-
	훈련 착종이 따른 효과 (기준: 경영·회제·사무 분야)	보건역로(8.6인계 표본) (요양지원 89.3%)	4.8%р(5.6%р) 1
100	훈련 방식에 따른 효과 (훈련 기준: 일반 훈련)	194	194
근로자훈련	훈련 식종에 따른 효과 (기준: 경영·회제·사무 분야)	보건의로(3,4만개 표본) (요임자원 67%)	3.2%p(3.6%p)
	훈련 목표	훈련 NCS 직종, 방식	1년 후 효과 (3년 후 효과)
		취업 확률	·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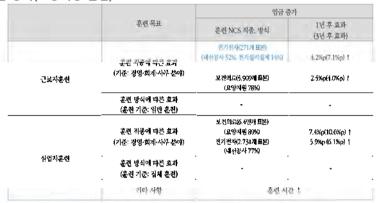
분석 결과2: 누구에게 어떤 훈련이 더 효과적인가

- 훈련의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 2. 관리직 경력자
 - 목적: 임금 증가(효과적 인적자원 활용)

		임금 증기	ŀ
	훈련목표	훈련 NCS 직종, 방식	1년 후 효과 (3년 후 효과)
근로자훈련	훈련 직종에 따른 효과 (기준: 경영·회제·사무 분야)	정보통신(GS개 표본) (민공지농물랫동구축 26%, 응용sw전지나아본 15%)	30만원(41만원) 1
	훈련 방식에 따른 효과 (훈련 기준: 일반 훈련)	인터넷원격훈련(5,020개 표분, 15%) 외국어과정훈련	20만원(69만원) † 61만원(53만원) †
실업자훈련	훈련 작중에 따른 효과 (기준: 경영·회제·사무 분야)	-	-
	훈련 방식에 따른 효과 (훈련 기준: 집체 훈련)	민터넷원격홍건(319개 표본, 24%)	63만원(73만원) †
	기타 사항	훈련 시간	•

• 인적자원이 풍부한 집단의 경우 인터넷원격훈련이 효율적일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훈련의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 3. 빈곤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
 - 목적: 취업 확률 증가(노동시장 진입)



• '전기전자'의 경우 자격과 훈련의 연계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대됨

정책 제언 ● 중·장년층 직업훈련 상담을 위한 플랫폼 제공 - 현재 개별 상담사에게는 상담 관련 정보가 제공되나, 제공되는 정보가 취합되고 공유 및 축적될 수 있는 플랫폼 미비(예. 나이스) 중·장년층을 위한 경력설계 상담 예) 중장년내일센터의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등 정보공유 플랫폼 직업훈련 성과 현황 상담사B 상담사B 상담사B 상담사B 상담사B 상당사C 상당사A 상당사A 상당사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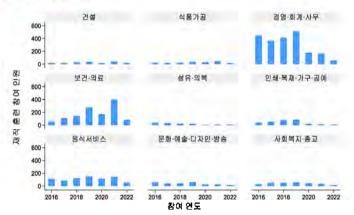
정책 제언

- 중·장년층 특성에 따른 직업훈련 성과 현황 제공 방안
-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임금정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
- 특성 선택 시 임금 분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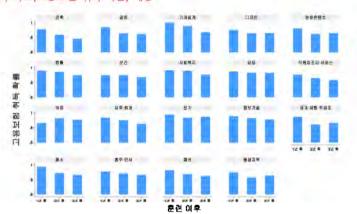
정책 제언

- 중·장년층 특성에 따른 직업훈련 성과 현황 제공 방안
-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임금정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
- 중장년층 특성 선택하는 경우 훈련 직종별 직업훈련 참여 현황을 제공
- 중·장년층 특성
- 과거 직종별 근무 일수: 관리직, 전문직 경험 전무
- 직전 일자리 직종: 경영·행정사무직
- 현재 연령: 53세
- 성별: 여성
- 학력: 고등학교졸업 ~ 4년제 졸업
- 거주지역: 경기도
- 훈련 종류: 근로자훈련



정책 제언

- 중·장년층 특성에 따른 직업훈련 성과 현황 제공 방안
-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임금정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
- 중장년층 특성 선택하는 경우 훈련 직종에 따른 <mark>성과 지표(고용보험 취득 확률</mark>) 제공
- 중·장년층 특성
- 과거 직종별 근무 일수: 관리직, 전문직 경험 전무
- 직전 일자리 직종: 경영·행정사무직
- 현재 연령: 53세
- 성별: 여성
- 학력: 고등학교졸업 ~ 4년제 졸업
- 거주지역: 경기도
- 훈련 종류: 근로자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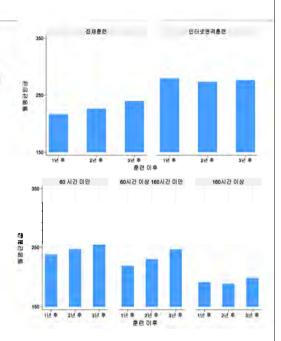
정책 제언

- 중·장년층 특성에 따른 직업훈련 성과 현황 제공 방안
-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임금정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
- 중장년층 특성 선택하는 경우 훈련 직종에 따른 <mark>성과 지표(월평균임금) 제공</mark>
 - 중·장년층 특성
 - 과거 직종별 근무 일수: 관리직, 전문직 경험 전무
 - 직전 일자리 직종: 경영 · 행정사무직
 - 현재 연령: 53세
 - 성별: 여성
 - 학력: 고등학교졸업 ~ 4년제 졸업
 - 거주지역: 경기도
 - 훈련 종류: 근로자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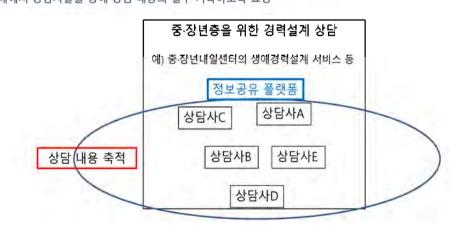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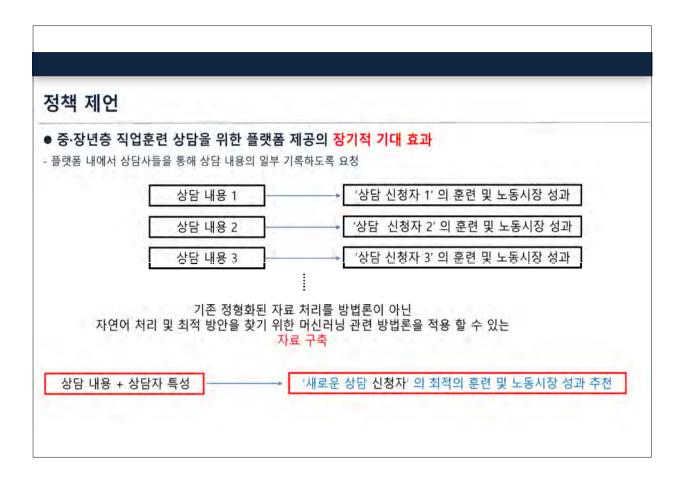
- 중·장년층 특성에 따른 직업훈련 성과 현황 제공 방안
-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임금정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
- 중장년층 특성 선택 시 훈련 방법, 시간에 따른 성과 지표(월평균임금) 제공
 - 중·장년층 특성
 - 과거 직종별 근무 일수: 관리직, 전문직 경험 전무
 - 직전 일자리 직종: 경영·행정사무직
 - 혀재 여련·53세
 - 성별: 여성
 - 학력: 고등학교졸업 ~ 4년제 졸업
 - 거주지역: 경기도
- 훈련 종류: 근로자훈련



정책 제언

- 중·장년층 직업훈련 상담을 위한 플랫폼 제공의 <mark>장기적 기대 효과</mark>
- 플랫폼 내에서 상담사들을 통해 상담 내용의 일부 기록하도록 요청





외국인 고급 인력의 실대와 정책 과제 -외국인 국내 박사를 중심으로

장광남 부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외국인 고급인력의 실태와 정책 과제 - 외국인 국내 박사를 중심으로 -

지역고등교육연구센터 장광남 부연구위원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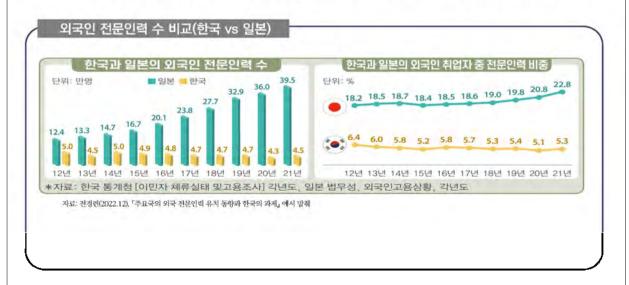
- I. 주요 배경
- Ⅱ. 외국인 국내 박사 현황
- Ⅲ. 외국인 국내 박사의 노동시장 이행 및 이동
- Ⅳ. 시사점 및 제언

• 대외 환경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발전과 신산업 도래
-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패권과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 ▶ 초격차룔 이끌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고급인재 확보의 필요성 부각
 - ▶ 주요국들은 고급 인력 및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 경주 중
 - ✓ (미국) 외국 전문가 비자 (한시적) 완화, STEM 분야 박사 유학생에게 영주권 부여. 학부·대학원 인재 양성을 위해 5년 간 52.2억 달러 지원(관계부처합동, '침단분이 인재양성 전략., 2023)
 - ፦ (중국) 선소재 등 8대 산업과 AI 등 7대 기술 지원과 고급인력 및 해외 인재 유치
 - ✔ (일본) 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제도 도입(2017), 일본 거주 외국인 연구·전문기술·경영활동자 에 대한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필요 체류 기간 완화)

I. 주요 배경

- (일본)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 노력으로 전문인력 수 및 비중 증가 (12 18.2% → 21 22.8%)
- (한국) 일본에 비해 외국인 전문인력이 적고,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 또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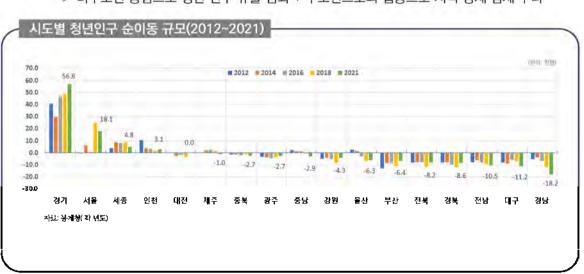
• 대내 환경

-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 인구 감소, 청년 중심의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우려
- 12대 주력산업 및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상
 - IoT가전, 미래형 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친환경 선박, 항공·드론 등 5대 유망신산업 기술인력 부족인원 증가 (18 6,754명 → '20 10,892명) (산업부, 「유망산산업 산업가술인력 전망」, 2022)
- 선진국 수준의 과학 인프라에 비해 고숙련 엔지니어 부족으로 산업계 인력난 지속
 - 고급인재 해외 유출, 부족한 해외 고급인재 유입 능력으로 인해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 관련 산업계 인력난 지속 (관계부처 합동,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2023)
- 고등교육기관 내 유학생 비율은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OECD 평균을 하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2)

I. 주요 배경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 비수도권 중심으로 청년 인구 유출 심화 + 수도권으로의 집중으로 지역 경제 침체 우려



-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상
 - ▶ 신기술·신산업 분야 고급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 高



I. 주요 배경

- 선진국 수준의 과학 인프라에 비해 부족한 고숙련 엔지니어
 - 첨단기술제품 수출 규모, 과학 인프라에 비해 고급인재 유입·정착시키는 능력은 낮게 나타남



I. 주요 배경

- 고등교육기관 내 유학생 비율은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OECD 평균을 하회
- > 2020년 기준 석사 10.6%(OECD 14.3%), 박사 16.7%(OECD 24.3%)
- > 조사대상 OECD 36개국 중 30위(박사는 27위)

고등교육기관 내 유학생 비율(OECD)

77/ 40/	77704		2015	년		2020년			
국가 순위	국가명	학사	석사	박사	전체	학사	석사	박사	전체
	OECD 전체	4.0	11.2	25.1	5.3	4.9	14.3	24.3	6.6
1	룩셈부르크	25.5	71.1	87.0	45.9	24.4	74.6	89.0	48.4
2	호주	13.3	42.6	33.8	15.5	15.5	49.8	33.4	26.0
3	영국	14.0	36.9	42.9	18.5	16.1	39.9	41.2	20.1
14	독일	4.7	12.9	9.1	7.7	7.0	17.1	23.1	11.2
19	프랑스	7.3	13.3	40.1	9.9	7.0	13.0	37.9	9.2
25	일본	2,4	6.8	18.2	3.4	3.2	10.5	20.9	5.7
26	미국	3.8	9.5	37.8	4.6	4.5	12.4	25.7	5.1
30	한국	1.4	6.4	8.7	1.7	3.3	10.6	16.7	3.7

지나 관계부터 합통(2023), 「유학생 교육성생력 제고 했다. 에서 발췌 (원자)는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2, 2022

10

I. 주요 배경

- 제도 및 정책 현황
 - 고숙련·고학력 전문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운영
 - 골드 카드, 브레인 풀, 과학 기술 우수인재 영주 귀화 패스트트랙 등

제도	주무부처	주요 내용
골드 카드	산업부	해외우수기술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KOTRA사장 명의의 고용추천서 발급하여, 사증 발급(E-7) 및 출입국 절차 등 출입국에 필요한 특혜를 부여
브레인 풀	과기부	국내 연구개발 현장에 해외우수과학자 초빙,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목표해외 거주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대상 인건비 및 유치경비 지원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대상 총장 추천 시 '거주 자격', 연구경력·실적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제도(2023년 도입)

소결

■ 최근 고급 인력 양성 및 활용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과 정책 방향은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와 정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음



글로벌경쟁력 강화, 인력 부족현상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田. 외국인 국내 박사 현황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 학위취득자 실태조사(박사조사)
 - 조사 목적: 국내 박사의 양성·활용에 대한 신뢰성 있고 시의적절한 통계 생성
 - 조사 시행: 2012년도 졸업자부터 매년 2회, 2월과 8월 졸업자 대상 실시
 - 조사 대상: 전국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내·외국인 신규 박사 전수
 - 조사 내용: 박사학위과정(연구성과, 재원조달 등),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 진로(박사후 과정, 시간 강사 등)
 - 조사 방법: 온·오프 조사 병행
 - 조사 특징: 국가승인통계(제 920009호), 전수 조사, 원삿(one-shot) 조사

14

田. 외국인 국내 박사 현황

• 외국인 국내 박사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여성 박사 중심으로 증가율 또한 높음



п. 외국인 국내 박사 현황

자료: 한국적인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원시자료(2016~2023)





• 전체 응답자 중 외국인 박사 비중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높음



田. 외국인 국내 박사 현황

국적별 외국인 응답자 비중 변화

• 중국인 박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배출된 외국인 박사의 약 2/3을 차지

최근 3년 ('21~'23)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국적
66.0	70.4	68.2	55.9	45.9	44.6	40.5	41.7	36.7	중국
7.1	5.7	6.2	10.4	13.2	11.5	11.1	9.8	12.7	베트남
4.5	4.2	4.1	5.5	7.7	9.5	10.3	6.6	8.5	파키스탄
4.2	3.4	4.2	5.4	6.1	7.1	9.7	10.0	7.7	인도
1.8	1.5	1.9	2.1	3.0	2.1	3.1	3.4	4.3	방글라데시
1.1	0.8	1.3	1.3	2.4	2.0	3.0	4.2	2.5	미국
0.3	0.1	0.3	0.9	0.5	0.9	1.3	1.0	2.8	일본
15.0	13.9	13.8	18.5	21.1	22.4	21.1	23.4	24.8	기타

주: 해당면도 딱지조시에 용당한 사람 기준으로 배출된 박지 전수와는 차이가 있음, 부용답지 제외. 자료: 한국의업능리연구원, "국내 신규바사학위 취득자 살태조사」, 원시자료(2016~2023)

16

_

• 내국인에 비해 학위취득 연령대가 낮음. 30대 이하 박사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

학위취득 면령별 외국인 응답자 비증 변화

田. 외국인 국내 박사 현황

(EFA): 36)

17

		내국	인		외국인			
학위취득연령	2021	2022	2023	최근 3년 ('21~'23)	2021	2022	2023	최근 3년 ('21~'23)
30세 미만	3.8	3.8	3.9	3.8	7.4	7.6	9.0	8.1
30세~34세	30.7	32.1	32.4	31.7	49.3	45.0	42.9	45.2
35세~39세	17.8	16.8	16.4	17.0	22.8	25.9	27.5	25.8
40세~44세	13.2	13.3	12.2	12.9	13.9	15.7	14.5	14.8
45세~49세	11.1	10.6	10.6	10.8	4.3	3.8	4.5	4.2
50세 이상	23.5	23.4	24.5	23.8	2.3	2.1	1.6	1.9

주: 해당면도 박사조사에 응답한 사람 기준으로 배출된 박사 전수와는 차이가 있음. 부용답자 때의. 자료: 한국의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시,.. 원시자료(2021~2023)

18

田. 외국인 국내 박사 현황

- 내국인에 비해 예술 및 인문학 전공 박사의 응답 비중이 높으며, 최근 3년 간 증가 추세
- 반면 STEM 계열 전공 박사 응답 비중은 낮으며, 최근 3년 간 감소 추세에 있음

전공분류별 외국인 응답자 비중 변화

(단위: %)

		내국	인		외국인			
전공분류	2021	2022	2023	최근 3년 ('21~'23)	2021	2022	2023	최근 3년 ('21~'23)
교육	5.4	5.1	5.4	5.3	4.7	5.8	6.0	5.6
예술 및 인문학	10.3	9.5	9.4	9.8	23.3	27.1	32.0	28.1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6.6	4.1	4.7	5.1	5.1	3.8	5.9	5.0
경영, 행정 및 법	11.2	11.4	11.6	11.4	11.6	15.1	13.0	13.4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13.3	12.5	13.0	12.9	11.7	8.6	7.8	9.1
정보통신기술	3.0	2.5	1.9	2.5	3.6	1.6	1.4	2.0
공학, 제조 및 건설	29.2	28.7	29.0	28.9	26.0	22.1	19.6	22.1
농림어업 및 수의학	1.8	1.2	1.3	1.4	2.5	1.5	0.8	1.5
보건 및 복지	15.3	18.7	18.3	17.4	5.7	4.7	5.6	5.3
서비스	4.0	6.4	5.5	5.3	5.9	9.6	7.9	8.0

국 해당연도 박사조사에 용답한 사람 가층으로 배출된 막사 천수와는 차이가 있음. 부용남자 책역. 자료: 한국적임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뭔시자료(2021~2023)

田. 외국인 국내 박사 현황

- 국내 대학원의 역량에 해당하는 연구환경, 교육의 질을 이유로 많이 선택
-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유로 응답하는 비율 증가

한국에서 박사학위 취득 이유

■학비지원이 많아서 ■연구환경이 좋아서 22.8% ■교육의 질이 좋아서 ■한국에서 일자리름 얻고 싶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 7|E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최근 3년
학비지원이 많아서	22.8	18.2	16.8	18.8
연구환경이 좋아서	31.3	25.8	27.4	27.8
교육의 질이 좋아서	21.2	26.6	28.8	26.2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고 싶어서	2.3	2.0	1.4	1.8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7.8	7.9	9.9	8.7
기타	14.6	19.5	15.7	16.7
X. U Origi alia)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원시자료(2014~2023)

20

田. 외국인 국내 박사 현황

- 내국인에 비해 가족의 지원이나 장학금을 통해 학비를 조달
- 최근 장학금의 비율이 줄고 본인 부담 및 가족의 지원으로 조달하는 경향

학비 조달 방법과 비율

(단위: 46)

SUU TEFUIN		내국	인		외국인			
학비 조달 방법	2021	2022	2023	최근 3년	2021	2022	2023	최근 3년
본인 부담	50.4	51.3	51.2	51.0	29.8	38.9	40,8	37.4
가족 지원	11.9	15.1	11.9	11.6	13.3	16.0	19.0	16.5
장학금	21.8	21.9	20.5	21.4	51.0	38.9	36 .7	41.0
학자금 대출	9.9	9.7	10.3	10.0	0.6	0.5	0.2	0.4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	3,6	3.7	3,7	3.7	3.3	3,8	2.0	3.0
그 외 기타	2.3	2.3	2.4	2.3	2.0	1.9	1.5	1.8

주: 배당면도 박사조사에 응답한 사람 기준으로 배출된 박사 친수와는 자이가 있음. 무응답자 제외.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원시자료(2021~2023)

皿. 외국인 국내 박사의 노동시장 이행 및 이동

-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박사의 이행 분석
 - 박사조사 최근 3개년(2021~2023) 원시자료 활용
 - ▶ 최근 3년 간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국적 박사 총 6,446명 대상
 - ▶ 6,446명 중 취업(예정)자는 3,579명으로 비율은 약 56.5%(내국인 박사 73.7%)
 - 노동시장 이행, 지역 이동 및 이주 중심으로 분석
 - [노동시장 이행] 취업자 비율(학업전념자), 연 근로소득(학업전념자), 전공과의 관련성
 - ☞ [지역 이동] 박사 취득 후 (1년 이내) 해외 취업 및 이주 계획, (국내 취업 시) 직장 소재지, 대학원 소재지/직장 소재지 변화 여부

22

皿. 외국인 국내 박사의 노동시장 이행 및 이동

• 내국인 박사에 비해 학업 전념 박사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연령이 낮은 것이 특징

	1국인 박사 인적						(단위: 명. %)
변수	구분	빈도	비중	변수	구분	빈도	비중
TITITISINH	학업전념	5,305	83.1		교육	361	5.0
직장경험여부	직장병행	1.082	16.9		예술 및 인문학	1.811	28,
성별	남성	3.328	51.7	전공 계열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320	5.0
	여성	3,113	48.3		경명, 행정 및 법	863	13.
	30세 미만	520	8.1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584	9.
	30세-34세	2.916	45.2		정보통신기술	129	2.0
연령대	35세~39세	1,661	25.8		공학, 제조 및 건설	1,422	22.
	40세~44세	954	14.8		농림어업 및 수의학	95	1,3
	45세~49세	269	4.2		보건 및 복지	342	5.3
	50세 이상	126	1.9		서비스	518	8.0
FU≘LOL 4 TUTI	수도권	2,468	38.3	₹IOI/MITI\NH	취업(예정)자	3,579	56.5
대학원 소재지	비수도권	3,978	61.7	취업(예정)여부	미취업자	2,758	43.5

추 이주 계획은 한위 취득 후(향후 1년 이내) 취임 및 이주 계획을 물음. 무용답자 제외. 자료: 한국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바사라위 취득자 실태조사」, 원시자료(2021~2023)

皿. 외국인 국내 박사의 노동시장 이행 및 이동

- → 취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한국 거주 계획인 외국인 박사로 한정 시 더 낮음
- ▶ 특히 예술 및 인문학 전공에서 한국 거주 계획하는 박사의 취업자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경향



				(단위: %)		
3	분	내국인	외국인			
	1.2		전체	한국 거주		
전	체	54.7	49.6	45.5		
성별	남성	57.7	52.6	48.8		
	여성	49.0	46.4	39.3		
LUSTOLY ALLE	수도권	54.8	44.6	43.6		
대학원소재지	비수도권	54.6	52.8	47.1		
	STEM	59.2	49.1	50.0		
전공 계열	예술 및 인문학	31.6	47.7	25.7		
	그 외 전공	48.2	51.6	38.3		

주: 재직 중, 취업 확정(박사후과정, 시간강시 포함) 응답자가 취업(예정)자에 해당함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까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원시자료(2021~2023)

24

皿. 외국인 국내 박사의 노동시장 이행 및 이동

- 내국인 박사에 비해 연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
- 2.000만 원~4.000만 원을 받는 외국인 박사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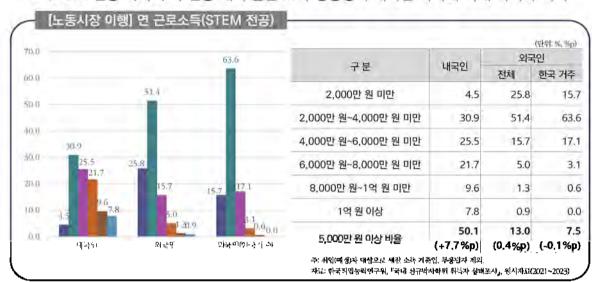


			(단위: %, %p)		
78	ומדעו	외국인			
구분	내국인		한국 거주		
2,000만 원 미만	10.9	28.1	18.5		
2,000만 원~4,000만 원 미만	32.6	51.7	62.1		
4,000만 원~6,000만 원 미만	24.5	12.1	15.7		
6,000만 원~8,000만 원 미만	17.8	4.6	2.9		
8,000만 원~1억 원 미만	7.8	1.6	0.5		
1억 원 이상	6.4	1.9	0.3		
5,000만 원 이상 비율	42.4	12.6	7.6		

수: 취업(예정)자 대상으로 세전 소득 기준임, 무용답자 제외. 자료: 한국직업등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원시자료(2021~2023)

皿. 외국인 국내 박사의 노동시장 이행 및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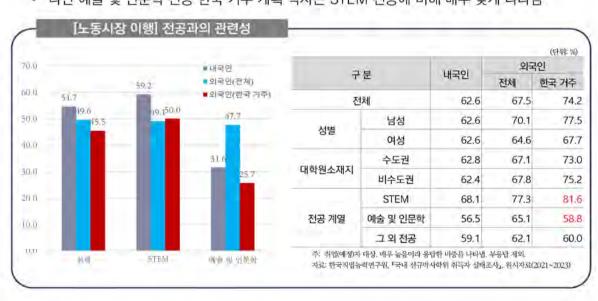
- STEM 전공 박사만을 비교했을 때, 연 근로소득 격차는 매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 STEM 전공 박사의 타 전공 대비 높은 소득 경향성이 내국인 박사에 비해 작거나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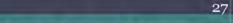


26

피. 외국인 국내 박사의 노동시장 이행 및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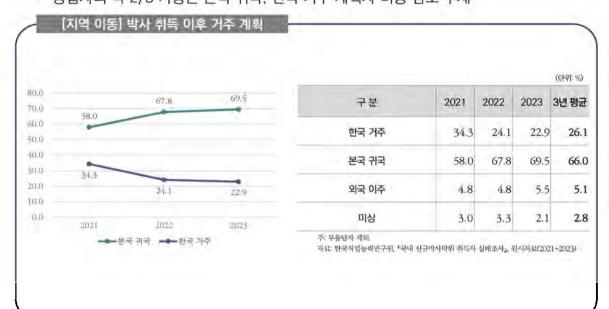
- 현 업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은 높은 편이며, 한국 거주 계획인 외국인 박사는 더 높게 나타남
- 다만 예술 및 인문학 전공 한국 거주 계획 박사는 STEM 전공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 응답자의 약 2/3 가량은 본국 귀국, 한국 거주 계획자 비중 감소 추세

皿. 외국인 국내 박사의 노동시장 이행 및 이동



28

皿. 외국인 국내 박사의 노동시장 이행 및 이동

STEM 전공 박사는 절반 가량이 한국 거주 계획

자료: 한국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급박사학위 취득자 실패조사』, 원시자료(2021~2023)

• 예술 및 인문학 전공 박사는 대부분 본국으로 귀국하는 등 전공별 차이가 큼

I-I-IOIEDE	박사 취득 미후	ALL MALL AND STREET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3년 평균
STEM	한국 거주	53.3	47.6	51.3	50.6
	본국 귀국	34.4	27.0	34.5	35.3
	외국 이주	8.6	11.4	13.1	11.2
	미상	3.6	4.0	1.1	2.9
	한국 거주	14,5	8.0	6,6	8.7
예술 및 인문학	본국 귀국	82.3	89.4	90.9	88.6
	외국 이주	0.8	0.6	1.2	0.9
	의상	2.4	1.9	1.2	
그 외 전공	한국 거주	25.0	16.1	15.3	17.8
	본국 귀국	69.5	77.9	77.7	76.0
	외국 이주	2.8	2.3	3.4	2.8
	미상	2.6	3.8	3.6	

皿. 외국인 국내 박사의 노동시장 이행 및 이동

- 내국인 박사에 비해 비수도권 직장에 취업
-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순

[지여 이토] (구대 치어) 지자 人대지

[시국 이승] (국내 귀합) 작성 조세시		(단위:%)	
구분	내국인	외국인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7.1	46.6	
비수도권(수도권 외 14개 시·도)	42.9	53.4	
동남권(무산·울산·경남)	10.0	14.2	
대경권(대구·경북)	7,5	10.4	
호남권(광주·전남·전북)	7.1	11.3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15.1	12.8	

2.1

1.1

라고: 한국적업능력연구인,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원시라고(2021~2023)

강원권(강원)

제주권(제주)

1.9

2.8

皿. 외국인 국내 박사의 노동시장 이행 및 이동

- 수도권(학교)→비수도권(직장) 9.3%, 비수도권(학교)→수도권(직장) 11.1%
 - 대학원 소재지에 있는 직장을 잡는 경향, 수도권으로의 유입 비중은 충청권이 가장 높음.

[지역 이동] 대학원 → 직장

대학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수도권	90.7	9.5	4.2	11.0	18.8	11.1	8.7	
동남권	2.1	83.3	3.2	2.0	4.3	- 1	1	
대경권	1.6	0.8	85.3	2.0			E 113	
호남권	1.6	1.6	4.2	85.0	0.9	-	-	
충청권	3.4	4.0	3.2	-	76.1	5.6	-	
강원권	0.3		>	- 1	-	83.3	-	
제주권	0.5	0.8	- 4		-	-	91.3	

수: 부용답자 제외(N=865), 강원권화 세주권은 용답차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 자료: 한국학업능력연구원, '국내 남규야사학위 취투자 살태조시고, 원지자료2021~2023)

IV. 시사점 및 제언

• 주요 결과 요약

- (현황) 외국인 국내 박사는 증가 추세로, 여성 박사 중심으로 최근 증가율 또한 높음.
 - 🤛 중국 국적 박사 비중 증가 + 중국 이외 국적 박사의 비중 감소
 - > 예술 및 인문학 전공 비중이 높으며 증가 추세. STEM 전공 비중은 낮으며 감소 추세.
 - 🛩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국 박사 학위 취득 이유로 응답하는 비중 높아짐
 - ☞ 내국인에 비해 (본인 보다는) 가족의 지원이나 장학금을 통해 학비 조달
 - 최근 장학금 조달 비율 줄고 본인 부담 및 가족 지원을 통한 조달 비율 증가 경향

IV. 시사점 및 제언

• 주요 결과 요약

- (노동시장 이행) 학업 전념 박사의 비중이 매우 높고, 학위 취득 연령이 낮음
 - 한국 거주 계획인 외국인 박사의 취업자 비율이 낮은 편(예술 및 인문학 전공)
 - ➤ 국내 내국인 박사에 비해 연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음(STEM 전공)
 - ➤ 현 업무와 전공 관련성은 높은 편이나, 다만 예술 및 인문학 전공 한국 거주 계획 박사는 STEM 전공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지역 이동) 약 2/3 가량 본국 귀국, 한국 거주 계획자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 STEM 전공 박사는 절반 가량이 한국 거주 계획
 - ▶ 반면, 예술 및 인문학 전공 박사는 대부분 본국으로 귀국하는 등 전공별 차이가 큠
 - ☞ 대부분 대학원 소재지에 있는 직장을 잡는 경향

IV. 시사점 및 제언

• 시사점 및 제언

- 유치에서 양성 및 취업, 정주까지 전 단계를 고려한 체계화된 전략 마련
 - 외국인 고급 전문인력 도입과 단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유학생 유치부터 양성(학업), 취업,
 정주까지 전 단계를 고려한 체계화된 유치 전략 마련 필요
- 전공별 차별화된 대응 전략 마련
 - ➤ STEM 전공 유학생 유치 노력, STEM 전공 박사 처우 개선과 적극적 활용 방안 모색
 - 예술 및 인문학 전공 박사 정착 유인 고민(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 활용)
- 다양한 국가로부터 유학생을 유인할 방안도 함께 고려

34

IV. 시사점 및 제언

• 시사점 및 제언

- 지역 중심의 외국인 고급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전략 마련
 - ▶ 주로 학위 취득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는 경향
 - 지역 산업 수요 대응 및 외국인 고급 인력 지역 정착 유인 설계
 - RISE 체계와의 연계 고려
- 범부처 간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교육부(고등교육기관 관할, 인재 양성), 법무부(비자 발급, 출입국 관리), 과기부(우수 과학기술인력 유치), 산업부(산업 수요 파악, 고급 전문인력 추천) 등 다부처에 걸쳐 있는 과제로서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필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원 26주년 및 기관명칭 변경 2주년 기념 심포지엄

대전환기 인재정책의 핵심 쟁점과 발전 전략

K R**/ I V**E 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략기획본부